

케직사경회의 기원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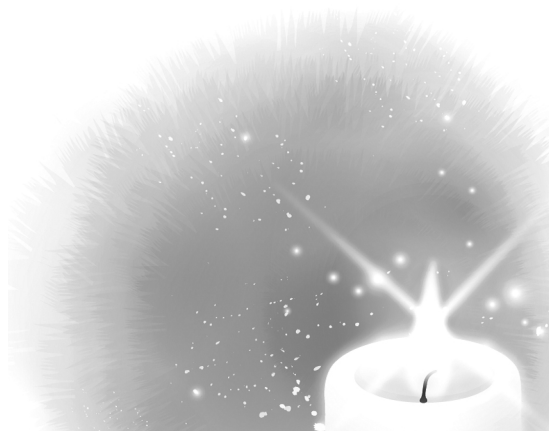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Keswick Convention

이상규

고신대 신학과 교수

목 차

1. 들어가면서 | 151
2. 역사적 배경 | 152
3. 케직사경회의 시원과 발전 | 159
4. 케직운동의 영향과 확산 | 162
5. 나오면서 | 168



케직사경회의 기원과 발전

이 논문은 19세기 후반(1873-5) 영국에서 시작된 케직사경회 혹은 ‘케직운동’(Keswick convention)의 역사적 배경과 시원에 대해 고찰하고, 이 운동의 전개과정, 신학적 성격, 그리고 이 운동이 끼친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18세기 이후 영미신학계의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환경에서 생성된 케직사경회와 ‘케직운동’은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시작되어 영국과 미국은 물론 영국의 영향 하에 있던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확산되었고, 1985년에는 한국에까지 소개되어 부흥과 갱신, 거룩한 삶을 위한 새로운 영성운동으로 발전했다. 이 운동은 복음주의 운동과 함께 19세기 이후 교회 갱신과 영적 각성, 성결운동과 실천적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의 연원과 발전, 특히 신학에 대해 한국교회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소개된 바 없다.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Keswick Convention*

주요어

케직 운동, 케직사경회, 보드만, 성결운동,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Abstract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Keswick Convention

Prof. Dr. Sanggyoo L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short history of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Keswick convention or Keswick movement, also called the Higher Life movement, originated late nineteenth century(1873-5) England, and to examine its theology and contribution to the Christian church in later years including Korean Churches. In this paper the writer argued that the Keswick movement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holier life movement taught by John Wesley, William E. Boardman or John William Fletcher, and various Christian leaders have been involved in the Keswick movement through the years, including missionaries Hudson Taylor and Amy Carmichael, devotional writer Oswald Chambers. In this paper the writer reassessed Keswick theology that teaches that the Christian life consists of two primary crises: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both of which happen at different times in the life of the believer. This paper traced Keswick movement, its origin, history and theology in the larger context of Evangelical movement for the Korean readers.

Keywords | Keswick Convention, Keswick Ministries,
W. E. Boardman, Holiness Movement,
Higher Christian Life.

1. 들어가면서

이 글의 목적은 19세기 후반, 곧 1873-5년 어간 영국에서 시작된 케직사경회 혹은 ‘케직운동’(Keswick convention)의 역사적 배경과 시원에 대해 고찰하고, 이 운동의 전개과정, 신학적 성격, 그리고 이 운동이 끼친 영향에 대해 검토하는데 있다. 18세기 이후 전개된 영미신학계의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큰 흐름 가운데 생성된 케직사경회와 이로부터 기원된 ‘케직운동’은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시작되어 영미는 물론 영국의 영향 하에 있던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확산되었고, 1985년에는 한국에까지 소개되어 부흥과 갱신, 거룩한 삶을 위한 새로운 영성운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운동은 복음주의 운동과 함께 19세기 이후 교회 갱신과 영적 각성, 성결운동과 실천적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의 연원과 발전, 특히 신학에 대해 한국교회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소개된 바 없다. 물론 케직운동에 대해서는 몇 종의 단행본이 역간된 바 있으나,¹⁾ 케직운동에서 선포된 설교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역사적 배경이나 기원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소개되지 못했다. 또 케직운동과 관련된 논문도 발표된 바 있다.²⁾ 특히 기독교학술원의 김영한 박사는 “케직운동의 영성”이라

* 이 논문은 2015년 10월 16일 기독교학술원에서 행한 강연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1) 이를 출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영국케직사경회, 『왕대신 우리 주』(두란노서원, 1986), 아더 피어슨, 『케직운동』(생명의말씀사, 2001), 김명혁, 『케직, 암스텔담 멧세지』(성광문화사, 2002), 존 스톱트, 『그리스도처럼: 케직 사경회 설교 1965-2007』(포이에마, 2013), 아더 피어슨, 『영국케직 집회 이야기』(평택대학교 출판부, 2014).
 2) 케직운동과 관련된 국내 논문으로는 (발표순), 김광열, “19세기 미국의 성결운동과 케직교훈의 성화론에 대한 개혁신학적 평가,” 『신학지남』 67/2(2000. 6), 174-91; 천영숙 “케직 교의에 나타난 성화론과 오순절 신학의 관계,” 『한영논총』 10(2006); 조규형, “아더 피어슨과 케직 사경회,” 『피어선 신학논단』 3/1(2014.2), 77-99 등이 있다.

는 논문을 통해 케직운동의 역사와 전개, 그리고 성결운동과 영성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교회의 자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상의 논문들은 케직운동의 신학적 배경이나 연원, 특히 신학적 성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되, 그간 소개되지 않았던 문헌에 기초하여 케직운동의 배경 역사 전개, 신학 그리고 그것이 19세기 이후 서구교회와 한국교회 끼친 영향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역사적 배경

케직사경회는 갑작스럽게 태동된 운동이 아니라 18세기 이후의 부단하게 지속되어 온 복음주의 운동이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19세기 미국교회의 복음주의 운동, 특히 웨슬리안 성결운동(Holiness movement)이 케직운동의 배경이 된다.³⁾ 웨슬리안 성결운동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지상에서 획득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는데, 이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죄에 대한 전체적인 죽음,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총체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칭의를 넘어 서는 두 번째 단계가 있다고 가르쳐 왔다.⁴⁾

이런 가르침은 거의 전적으로 감리교파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웨슬리의 변증적 작품인 『기독교인의 완전에 대한 간명한 해설』(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이 광범위하게 읽히지면서 웨슬리안의 성결론에 대한

3) 케직운동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데이비드 베빙톤(이은선 역), 『영국의 복음주의』(한들, 1998)가 있다.

4) F. Whaling, *The Classics of Western Spirituality* (London: 1981), 334. 베빙톤, 240에서 중인,

관심을 환기시켰고, 감리교 목사 윌리엄 아더(William Arthur)의 『불의 언어』(*The Tongue of Fire*, 1856)는 전통적 웨슬리안의 성결론, 곧 제2의 축복 개념을 약간 완화하여 신학적 저항을 제거한 가운데 성결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켜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183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미국 복음주의 교회에서 특히 세 가지 형태의 성결운동이 일어났는데, 웨슬리안 전통의 팔머 부인(Mrs Phoebe Palmer)이 중심이 된 성결운동, 미국 제2차 각성운동이 중심인물이었던 찰스 피니(Charles Finney)의 부흥운동,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초교파적인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생활’(Higher Christian Life)운동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이런 운동의 성화관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넓은 의미에서 웨슬리안적 성격, 곧 중생과 구별되는 성화를 강조하는 웨슬리의 제2의 축복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 이런 일련의 미국교회의 복음주의운동이 케직사경회 시원의 배경이 된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배경에 대해 좀 더 부연하고자 한다. 미국 감리교회 곧 웨슬리안 운동은 완전성화의 교리를 중시하였다. 웨슬리는 미국에 간 감리교 선교사들이 완전성화교리를 소홀히 할 것을 염려하여 그 교리를 계속 유지하도록 특별히 지시했을 정도였다.⁶⁾ 그래서 미국에서 사역한 프랜시스 아즈베리(Francis Asbury), 사무엘 시버리(Samuel Seabury) 등은 웨슬리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회심 이후에 주어지는 성령의 획기적인 역사로서의 완전성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1812-1840년 어간 이런 점은 미국 감리교회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못했다. 그래서 회개가 일차적인 과제였고, 성화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었다.⁷⁾ 이런 성결의 쇠퇴 현상에 반대하여 1835년 이후

5) B. Warfield, *Perfectionism*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32), 563.

6) John Peter, *Christian Perfection and American Methodism* (NY: Abingdon Press, 1956), 67-80.

7) John Peters, 120.

1850년대에 성화를 강조하고 성결회복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인물이 팔머 부인(Phoebe Palmer)이었다. 여성부흥사이기도 했던 팔머 부인은 남편과 함께 화요기도모임(Tuesday Meeting for the Promotion of Holiness)을 개최하여 상당한 호응을 얻었고, 1886년에는 전국에 238개 처의 집회소가 형성될 만큼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⁸⁾

팔머는 자신의 『성결의 길』(*Ways of Holiness*)에서 제시한 바처럼 그리스도 자신이 제단인데,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만든다.”(마 23:19)는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단에 드리면 제단, 곧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이른바 ‘제단 신학’(alter theology)를 제창했다.⁹⁾ 팔머는 제단에 자신을 드릴 것을 요구했고, 이것을 성결이라고 불렀다.¹⁰⁾ 그의 성결론은 웨슬리안 성결론의 핵심인 인간의 부패성과 거기로부터의 해방, 곧 부패성의 제거라는 성결의 개념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¹¹⁾ 팔머의 성결운동은 19세기 미국 감리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고, 결과적으로 감리교의 벽을 넘어 성결운동의 확산을 가져왔다. 특히 팔머는 자신의 저술만이 아니라 1859-1864년까지 장기간 영국을 방문함으로써 영국 감리교 안에 자신의 메시지를 뿌리내리게 만들었다.¹²⁾ 후에 구세군의 창립자가 되는 윌리엄 부스와 캐더린 부스를 성결운동으로 이끈 이도 팔머 부인이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팔머 부인의 성화교리는 구세군의 교리적 표준 속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다.

미국 오벌린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된 성결운동 또한 케직 운동의 배경이 된다. 오벌린대학 신학부 교수였던 찰스 피니(Charles G. Finny, 1792-1875)와

8) 김광열, “19세기 미국의 성결운동과 케직 교훈의 성화론에 대한 개혁신학적 평가,” 『신학지남』 67/2(2000. 6), 177.

9) 데이비드 베빙톤, 257.

10) 박명수, 『근대사회와 복음주의』(서울: 한들출판사, 2008), 183.

11) 박명수, 183.

12) 데이비드 베빙톤, 257.

학자인 아사 마한(Asa Mahan)은 이 운동의 중심인물이었다. 1824년 장로교 목사로 안수 받았던 피니는 1835년 장로교와 완전히 결별했는데, 웨슬리의 『기독교인의 완전에 대한 간명한 해설』의 영향을 받은 그는 자기 의지 및 결단을 강조했다. 1836년경에는 온전한 성화가 이 세상에서 가능하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개혁주의 전통에서 중생은 전적인 심령의 변화로 이루어지지만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이며 완전에는 이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인간의 육체는 죄성과 무관할 수 없고 육체가 존재하는 한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중시했는데, 이런 칼빈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 오벌린대학 중심의 완전주의(Oberlin Perfectionism)였다.¹³⁾ 그러나 오벌린 완전주의도 당시 미국적 상황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하는 정통 칼빈주의 입장을 다소 완화하여 인간의 타락보다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며, 내적인 인간성의 변화보다는 외적인 도덕률의 준수를 중시했다. 벤자민 워필드는 오벌린 성결운동이 자연인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아담의 타락이후 출생한 인간의 자연적 능력(natural ability)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펠라기우스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했다.¹⁴⁾

오벌린 완전주의는 성결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지적인 순종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피니는 전통적인 구원 개념이 죄 중(in sin)에서의 구원이라면, 이제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from sin)의 구원이라고 주장하였다.¹⁵⁾ 이런 구원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현세적 구원이어야 한다고 보았고, 현세에서 온전한

13) 박명수, 191.

14) 워필드는 피니의 성결론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점이 있다는 점에서 펠라기안주의라고 보았다. 그러나 웨슬리안 들은 피니의 성결론은 웨슬리안 성결론의 변형으로 인식했다.

15) Charles Finny, *Principle of Sanctification* (Minneapolis: Bethany Pub., 1986). 박명수, 192 중인.

성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성화를 중생이후 꾸준한 신앙훈련으로 보는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낯선 것이었으나, 피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성화의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다.¹⁶⁾ 이런 피니를 중심으로 한 오벌린의 성화론은 교의적 논리에 쫓아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활력으로 확산되었다.

그런데 1840년대까지 이어진 오벌린 완전주의는 1850년대 시들해 지기 시작했고, 19세기 후반에는 새로운 형태의 성결운동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생활’(Higher Christian Life)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비 감리교도들, 곧 장로교 웨이커교도 혹은 영국교회(성공회) 교인들 가운데서 전개된 초교파적 운동이었다. 그 중심인물이 장로교의 윌리엄 보드만(William E. Boardman, 1810-1886)과 웨이커교도인 스미스 부부[Robert Pearsall Smith(1827-1899), Hannah Smith(1832-1912)]였다.

보드만은 신파 장로교회에 속한 목사로서 신파의 신학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신파(New school)는 18세기 신파(New side)의 후계자들로 신학적 관용주의를 표방하던 뉴잉글랜드신학에 포용적이었고, 따라서 엄격한 신조주의를 거부했다. 이들은 학력이 다소 부족해도 목사로 인수하여 서부의 프런티어 지역에서 목회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1801년 회중교회와의 통합계획을 지지했다. 당시 사회적인 관심사였던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구파로부터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에 철저히 못한 포용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어떤 점에서 신파의 신학이란 엄격한 칼빈주의 신학을 복음주의적 알미니안주의 입장에서 재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전적타락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육적 부패성(physical depravity)으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나 그것이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신파장로교회가 1837년 뉴욕의 어번에 모여 저들의 신학을 해명하는 어번성명서(Auburn Declaration)을 발표하고,

16) 이런 피니의 성화론이 19세기 수많은 사회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박명수, 192.

칼빈주의 교리의 적극적인 수용을 선언한 것은 교리적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였다. 1838년 조직된 이 신파장로교회가 19세기 미국 복음주의를 대표했다.¹⁷⁾

보드만은 특히 독일 베르린대학교 교회사 교수인 니안더(August Neander, 1789-1850)의 제자인 스위의 종교개혁자 도비네(Merle D'Aubigie, 1794-1872)의 영향을 받았는데, 유대인 출신인 니안더는 “신학자를 만드는 것은 가슴이다”(Pectus est, quod theologum facit)라고 하면서 소위 ‘영혼의 신학’을 제창한 인물이다. 그에게 있어서 신학은 거룩한 경건이었고 삶이었다. 니안더의 영향을 받은 도비네는 칭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듯이 성화도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보드만은 이런 가르침을 수용하여 그리스도는 칭의의 주이자 성화의 주라는 사상을 발전시켰다. 이런 배경에서 출발한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운동은 보드만의 저서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생활』(*The Higher Christian Life*)와 사라 랭포드(Mrs Sarah A. Langford, 1806-1896)와 동생 팔머((Mrs Phoebe Palmer, 1807-1874)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로 확산되었고, 알버트 심슨(Albert B. Simpson, 1843-1919)에게 영향을 준다.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언약도(Covenanters) 후손인 장로교 목사 심슨은 1887년 기독교선교연맹(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을 조직하였고, 자신의 『사중복음』(*The Four Fold Gospel*)에서 새로운 사중복음을 제창했다. 즉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성결케 하시는 이, 치료자, 장차 오실 왕이라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4중 사역을 주장했다. 이런 그의 주장의 성결교회의 사중복음(四重福音)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심슨은 성화의 체험을 죄로부터 분리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의 형상과 뜻에 부합함,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제2의 축복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지만 순간적 헌신과 철저한 복종을 통하여 예수의 인격적

17) George Marsden, *The Evangelical Mind and the New School Presbyterian Experi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0), 215-16.

내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¹⁸⁾ 그는 19세기 후반 무디와 함께 미국 복음주의 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1887년에는 C&MA(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을 창립했는데, 소속 교회는 미국의 2천여 곳에 산재해 있다.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운동은 특히 1870년대 스미스 부부의 사역을 통해 영국에 알려지게 된다. 부연하면, 보드만의 책은 1860년 영국에서 재출판되었고, 그의 주장은 영국으로 스며들었다. 또 스미스 부부는 1870년대 영국에서 큰 집회를 개최했는데, 이런 일련의 활동은 영국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감리교성결운동가는 이를 “미국으로부터의 중대한 물결”이라고 불렀다.¹⁹⁾

스미스 부부는 회개로 인한 칭의가 구원의 기본단계이지만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차원 높은 신앙생활, 곧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칭의는 그리스도의 일이나 성화는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이들은 그리스도는 칭의의 주일 뿐 아니라 성화의 주라는 점을 강조하고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상과 같은 미국 복음주의 권의 성결운동은 비록 성화론에 다소 이견을 보였으나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에 대한 가치를 고양시켜 주었다. 이상과 같은 미국에서 전개된 성결운동이 영국에서 시원한 케직사경회 운동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볼 때 19세기 미국교회적 배경의 성결운동과 영국에서의 케직운동은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8) 심슨은 1891년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302장)과 1897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430장)를 작사 작곡하기도 했다. 심슨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노윤식, “위대한 선교동원가: A. B. 심슨의 생애와 사역,” 『한국선교 KMQ』 54(2015, 여름), 152-161을 참고할 것.

19) I. E. Page ed, *John Brush* (London, 1912), 146, 베빙톤, 256 중인.

3. 케직사경회의 시원과 발전

1870년대 영미 기독교권에서 구원과 거룩한 삶, 혹은 칭의와 성화는 두 가지 주된 담론이었다. 사실 영국에서도 1850년대 말부터 성결을 추구하는 소규모의 사경회가 개최되고 있었는데, 이런 케직 이전의 케직(pre-Keswick)도 영국에서의 케직운동 형성의 저류를 형성했다. 이런 배경에서 영국교회의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일어났다.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보다 고결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신앙운동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영국교회의 이신론(deism)과 합리주의, 그리고 고교회의 의식주의(儀式主義) 등과 같은 영적 무기력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전개된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생활’(The Higher Christian Life) 운동과 같은 성결운동이 영국에 소개되었고, 보드만의 책,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생활』(*The Higher Christian Life*)과 감리교의 윌리엄 아더(William Arthur)의 『불의 혀』(*Tongue of Fire*, 1856)가 영국에서 널리 읽혀지고 있었다. 아더는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말하면서 첫째는 속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강림이고, 둘째는 중생을 위한 성령의 강림이라고 주장했다. 이 성령의 사역이 신자들의 영혼을 성결케 하며 현재의 삶속에서 신자들을 강건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디와 동료 생키(I. D. Sankey)는 영국을 방문하고 1873년 6월부터 1875년 8월 어간 영국 전역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죄의 심각성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중생을 설교했다.²⁰⁾ 무디 부흥운동과 함께 스미스 부부의 대중집회 사역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20) 이런 점에서 무디의 메시지는 흔히 3R, 곧 Ruin by Sin, Redemption by Christ, Regeneration by the Holy Ghost로 요약하고 있다.

스미스 부부는 1874년 7월 17일부터 3일까지 캠브릿지의 브로드랜드 공원 집회를 시작으로 옥스퍼드, 맨체스터, 노팅햄, 런던 등지에서 개최되었다. 여름 방학 기간에는 캠브릿지 혹은 옥스퍼드 학생들을 위한 집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특히 1875년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연인원 8천명이 회집한 가운데 개최된 브라이튼(Brighton) 집회는 케직운동의 태동이 된다. 초교파적인 브라이튼 집회에 참석했던 지도자들은 그해 여름 영국북부지방 휴양도시인 케직(Keswick)에서 성경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케직은 컴버랜드에 있는 인구 4천여 명의 작은 도시였다. 집회는 1875년 6월 29일 개최되어 7월 2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이 때 집회에는 300-400명 정도에 불과했으나 곧 참석자는 크게 증가하였다. 집회는 영국교회 목사 하트포드-베터스비(Hartford-Battersby)가 시무하는 성 요한교회에서 개최되었는데, 아침 7시 회집하여 아침식사, 10시 오전 모임, 11시 찬양과 간증, 그리고 기도회 개최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후 3시에는 여성들만의 모임이 있었고 4시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모여 성경 읽기 등 묵상하고 저녁에 다시 집회가 개최되었다. 이것이 케직 사경회의 시작이 된다. 제1회 케직사경회의 공식적인 집회를 전후한 다양한 집회와 그 성격, 그리고 케직사경회의 영성에 대해서는 이미 김영한 박사에 의해 명쾌하게 정리되었으므로²¹⁾ 다시 상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개설하고자 한다.

케직에서 모인 첫 사경회 집회에 당초 스미스 부부가 주 강사로 초대되었으나 개최 2주전 갑작스럽게 모든 사역의 중단을 선언하고 철수하게 되어 첫 사경회의 인도자는 영국교회의 강해설교자 이반 홉킨스(Evan Henry Hopkins)였다.²²⁾ 홉킨스는 런던의 쿠존(Curzon)에서 모인 스미스 부부의

21) 기독교인 뉴스, <http://www.kidokin.kr>

22) 케직 초기의 신학을 홉킨스의 신학적 입장에서 유추하기도 한다. 그는 원죄를 인간 본성에 내재해 있는 죄성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죄에 대한 경향성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성경은 원죄의 제거보다는 죄에 대한 경향성을 제어하는(counteraction) 것으로 이해했다. 이 제어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대중집회에 참석했던 인물로서 케직운동의 신학자로 불리고 있다. 케직 운동은 그 성격상 기존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이었고, 중산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도시 빈민 탄광노동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했던 이전 시대 웨슬리의 부흥운동과 구별된다.

1875년 시작된 케직사경회는 매년 7월 개최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통상 케직 집회는 5일간 개최되었는데, 다섯 가지 주제가 취급되었다고 한다. 즉, 죄의 심각성,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준비, 헌신, 성령으로 사는 생활, 그리고 봉사였다.²³⁾ 결국 케직 사경회는 구원 이후의 그리스도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지향하는 영성운동이었다. 케직이 중시했던 실천적 봉사에 대한 강조는 세계전도운동으로 구현되어 케직운동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해외 선교운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케직 운동은 비록 영국교회 인물이 주축이 되었으나 근본적으로 초교파적 운동이었고,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니라.”는 말씀은 케직운동의 연합적 성격을 표방하는 모토가 되었다. 그래서 영국교회의 저교회나 고교회, 그리고 플리머스형제단들을 포함한 비국교도들도 가담하였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all in Christ)이 ‘실제적인 성결의 증진’으로 인식했다.

때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점에서 홉킨스의 입장을 케직의 성화론으로 말하기도 한다.

23) 김광열, 184; 최재건 편, 『근현대부흥운동사』 (서울: CLC, 2007), 178-79.

4. 케직운동의 영향과 확산

첫 케직사경회는 영국교회 복음주의자들로 시작되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인원이 증가하였다. 그래서 1885년에는 약 2천명으로, 1905년에는 3천명으로, 1907년에는 약 6천명으로 증가되었고, 19세기 후반의 영국 복음주의 영성운동의 중심점이 되었다. 곧 다른 나라로 전파되어 대륙간 인적 연쇄를 형성하여 초교파적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결과적으로 세계선교 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 점을 몇 가지 향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우선 케직운동은 19세기 말 다시 미국으로 확산되어 무디(D. L. Moody, 1837-1899)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무디의 감화력은 학생자원운동(SVM)에 영향을 끼쳐 상당수의 선교사가 배출되었다.²⁴⁾ 실제로 무디의 감화력이 영향을 끼쳐 1886년 여름 노스필드에 있는 헬몬산 집회에서 100여명의 학생들이 선교헌신에서 발단된 학생자원운동은 큰 호응 가운데서 확산되었고, 5년 후인 1891년에는 북미지역의 350개 교육기관에 선교단체가 조직되었고, 선교 자원자는 6,200명, 해외에 선교사로 파송된 인원은 320명에 달했다. 헬몬산 집회 20주년이 되는 1906년까지 2,953명의 자원자들이 선교지로 파송되었고, 학생자원운동이 시작된 지 50년이 되었을 때 약 2만5백여 명의 학생들이 해외선교지로 파송된²⁵⁾ 점을 고려해 볼 때 케직과 무디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케직이나 무디의 영향력만으로 만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케직을 중심으로 전개된 19세기 말의 영적 물결이 커다란

24) 김영한, “케직 운동의 영성,”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oonh20&logNo=220374578736>.

25) Herbert Kane(박광철역), 『기독교 세계선교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148; Herbert Kane, 『세계선교의 어제와 오늘』, 104.

영향을 가져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뉴 잉글랜드지역의 침례교 목사인 고든(Adoniram J. Gordon, 1836-1895)은 무디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고, 복음의 열망을 가진 인물이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내 주 되신 주를 참사랑하고”의 작곡자이기도 한 그도 케직운동의 영향을 주고 받았고, 그 결실이 『성령의 사역』(*The Ministry of the Spirit*, 1894)에 드러나 있다. 그가 1889년 보스톤에 선교사 훈련원을 설립했는데, 후일 고든대학과 고든-코넬신학교로 발전하였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버지니아 유니언 신학교 출신인 장로교 목사 아더 피어슨(Arthur T. Pierson, 1837-1911)은 열성적인 설교가로서 케직의 대표적인 미국인 강사였다. 1878년 브리스톨의 조지 필러를 만난 이후 종래의 후천년설을 포기하고 전천년설을 신봉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믿었다. 특히 그는 1897년 처음으로 케직을 방문하여 설교한 이후 1909년까지 계속 참가하여 설교하였고, 케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²⁶⁾ 1910년에도 참석키로 되어 있었으나 사경회 개최 두 달 전에 소천 되어 참석할 수 없었다. 그의 유언으로 한국에 평택대학교의 전신인 피어선신학교가 설립된 것은 케직운동의 광범위한 영적 연쇄를 보여준다.²⁸⁾ 그는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의 편집인이기도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작은 교회 목회자로 살았던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1828-1917) 또한 케직운동에 영향을 주고받았다. 피어슨에게 케직운동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던 머레이는 1895년 케직사경회에서 육적이고 영적인 생활(the carnal and spiritual life), 고상한 삶으로의 길(the pathway to the higher life)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케직운동을 지원하였다. 이 두 설교가 포함된 케직사경회에서 선포한 말씀을 엮은 『영적생활』(*The Spiritual Life*)²⁹⁾

26) 조규형, “아더 피어슨과 케직 사경회,” 『피어선신학논단』 3/1(2014. 2), 79, 82.

27) J. Pollock, *The Keswick Story*, 117-118.

28) 김영한,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oonh20&logNo=220374578736>

는 오늘날까지 수많은 독자들에게 감동과 영적 변화를 주고 있다.

예일대학교와 예일대학원 신학부를 졸업한 부흥운동가 토레이(Reuben Archer Torrey, 1856-1928) 또한 케직의 사람이었다. 무디의 권유로 무디 성경학원(Moody Bible Institute)의 전신인 시카고 복음화협회(Chicago Evangelization Society) 초대 원장을 역임한 그는 초기에는 고등비평가였으나 복음주의적 교리를 회복하였고, 일생동안 자유주의의 비판가로 살았던 신학자였다. 그는 케직강단에서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설교하였고 성령 세례를 강조하였다. 김영한 교수는 그의 성령론이 캐나다 출신 선교사 로버트 하디(R. Hardie, 1860-1949)에게 영향을 끼쳐, 그것이 1903년 원산 부흥과 1907년의 평양부흥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토레이 가(家)는 4대에 걸쳐 한국교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의 아들 토레이 2세는 중국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한국전쟁 때 한국으로 들어와 장애인과 고아들을 위해 사역하였고, 그의 손자 토레이 3세(대천덕)는 성공회 신부로서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세웠다. 예수원은 현재 4세인 벤 토레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R. A. 토레이는 목사, 부흥운동가, 세계적 복음주의자, 저술가로 성령, 기도, 구원, 영혼구령 등에 관한 4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

2) 케직운동이 가장 신속하게 소개된 나라는 호주였다. 호주는 영연방이라는 점에서 영국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었고, 따라서 케직운동도 신속하게 소개되었다. 소개되었다기보다는 영국에서와 비슷한 시기에 독자적으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호주 멜버른 교외 코필드에 위치한 성 메리교회 맥카트니(H. B. Macartney) 목사는 복음주의적인 지도자로 세계교회 동향에 유념하였고,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진 선구적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1873년부터 선교잡지, *The Missionary at Home and Abroad*를 발행해 왔는데, 윌리엄 보드만의

29) 최근본으로는 A. Murray, *The Spiritual Life*(New Kensington: Whitaker House, 1996)가 있다.

‘고상한 기독교적 생활’ 운동에 감명을 받고 1874년 담임하고 있는 자신의 교회당에서 300여명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초청하여 집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영국에서 제1회 케직사경회가 개최되기 일 년 전의 일이었다. 이 집회가 호주에서의 첫 케직사경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집회에서는 교파 간의 차이점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며 차이점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이자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교파의 벽을 넘은 각각의 신자들 간의 연합(unity of Jesus Christ)을 강조했다. 매카트니 목사는 호주에서의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운동의 선구자였다.³⁰⁾ 1874년 자신이 발행하는 위의 잡지에 영국 옥스퍼드(St. Aldate)에서 모인 보드만과 로버트 스미스 집회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 집회에서 100여명의 성직자들이 성령세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런 영국과의 상호 연쇄 가운데, 케직운동은 호주 멜버른에서 태동되었고, 영국에서의 전례에 따라 케직사경회를 운영했다. 필자가 1987년 멜버른에 거주할 때 부활절 기간 멜버른의 단데농 마운틴에서 개최된 케직사경회에 참석한 바 있다.

주목할 사실은 케직운동을 주도했던 매카트니 목사는 교회 연합과 함께 선교의 이상을 고취하였고, 그의 영향 하에서 사라 데이비스(Miss Sarah Davics)는 인도 선교를 자원하였다. 사라는 1875년 호주 케직사경회 기간에 애창했던 찬송 *I am Coming to the Cross*(이 찬송은 한국 찬송에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로 번역되었다)에 큰 감동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라는 호주에서 인도로 파견된 첫 여 선교사가 되었다.³¹⁾ 그가 바로 한국에 파송된 첫 호주선교사인 해리 데이비스(J. H. Davies)의 누이였다. 데이비스 또한 누이 사라를 뒤이어 1876년 인도선교사로 파송되었고, 그곳에

30) 호주 멜버른 매카트니 목사와 데이비스, 그리고 케직운동에 관해서는 Mark Durie, “H. B. Macartney and J. H. Davies: Fulfilling the Great Commission from Australia” (unpublished paper)를 참고함.

31) Keith Cole, *A History of the CMS of Australia* (Melbourne: The Ruskin Press, 1971), 130.

서 약 2년간 사역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호주로 돌아왔다. 그가 1889년 10월에는 한국 선교사로 내한함으로써 호주교회의 첫 한국 선교사가 되었다. 매카트니 목사의 성메리교회에서 다수의 젊은이들이 해외선교를 자원한 것은 매카트니 목사의 영향이 컸고, 이는 케직운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영국의 케직 운동은 호주교회의 한국 선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3) 케직운동은 웨일즈의 부흥과 중국내지선교회(CIM) 창립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아더 피어슨은 『웨일즈부흥』(1905)에서 웨일즈지방 부흥은 케직에서 형성된 기도모임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영국의 케직사경회에 참석했던 13명의 웨일즈인들은 웨일즈에도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고, 1903년 웨일즈에서 첫 케직사경회가 개최되었을 때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임재가 계속되었다.³²⁾ 1904년 8월에는 두 번째 케직사경회가 개최되었다. 이때에도 부흥과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성령충만을 경험한 청년이 이반 로버츠(Evan Roberts, 1878-1951)였다. 광부 출신의 26세의 청년 로버츠는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는 간절한 영혼의 열망을 가지고 목사후보생으로 준비를 막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는 웨일즈부흥의 주역이 되었고, 견잡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웨일즈를 부흥의 파도로 물결치게 만들었다. 부흥은 웨일즈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술집과 극장이 폐쇄되고 범죄자가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연원적으로 보면 케직사경회가 가져온 영적 연쇄였다.

4) 케직운동은 허드슨 테일러와 세계선교에도 커다란 자취를 남겼다. 케직운동과 선교관계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허드슨 테일러(Hudson J. Taylor,

32) 박용규, 『세계부흥운동사』(생명의 말씀사, 2014), 588-90.

1832-1905)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테일러의 일생의 헌신이 케직만의 영향이라고 할 수 없지만 당시의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큰 흐름은 테일러의 헌신에 영향을 주었고, 아더 피어슨을 비롯한 당시 영적 인물들의 상호연쇄는 케직운동을 거점으로 하였으므로 테일러도 이런 영적 울타리에서 도피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신앙에 근거한 성결에 대한 그의 관심은 케직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와 동일했으므로 상호관련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가 중국 복음선교회 소속으로 처음으로 상해에 도착했던 때가 1854년이었다. 22세 때였다. 한 기(term)를 마치고 귀국한 그는 1865년 중국내지선교회(CIM)를 창립하는데 이 어간 케직운동가들과의 교체는 그의 헌신과 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고, 케직사경회의 후원을 받기도 한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895년에는 641명의 선교사들이 중국전역에서 활동했는데, 이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개신교 전체 선교사의 거의 절반에 해당했다.

테일러는 중국의 복음화라는 거대한 목표를 보다 빠른 기간에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특히 1898년 3월 상하이에서 쓴 편지를 보면 중국복음화를 위한 이른바 ‘전진 운동’(Forward Movement)의 일환으로 케직 대표단의 중국방문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보다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신실한 전도자들의 양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명 받은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한 말씀 전파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리스인답게 사는 삶의 실천이 요구된다고 썼다.³³⁾ 케직 대표단으로 아더 피어슨도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는 오지 못했으나, 찰스 인우드 목사(Rev Charles Inwood)가 중국으로 와 기독교의 기본적 진리에서부터 기독교의 고상한 삶의 영역을 설교하고 가르쳤고, 이런 집회가 반복되었다고 한다.³⁴⁾ 그는 1901년 은퇴했고 4년 후 장사에서 세상을 떠난다.³⁵⁾

33) H. Taylor, *Hudson Taylor: In Early Years The Growth of a Soul* (London: CIM, 1949), 568,

34) H. Taylor, 573.

5. 나오면서

이상에서 케직운동의 역사적 배경, 기원과 전개, 그리고 케직운동이 끼친 기여와 영향에 대해 개관하였다. 이 글을 마감하면서 두 가지 점에 대해 언급하고 한다, 첫째는 신학의 문제인데, 비록 이 글에서 신학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급하지 못했지만, 케직의 신학이 어떠하냐 라고 말할 때 인간의 죄와 죄의 폐해와 그 심각성을 중시하고, 성결(성화)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 이들은 인간의 옛 본성이 믿음의 연료와 더불어 점차 사라진다는 소위 기계적인 성화론이나, 개인의 노력이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도 배격한다고 말한다. 성화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수행하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케직운동은 중생 이후의 2차적인 경험으로서의 성화를 지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임스 패커(J. Packer)는 케직의 신학이란 웨슬레주의를 약간 발전시킨 수정판 정도로 이해했다.³⁵⁾ 일반적으로 케직운동은 성격상 정통 복음주의와 웨슬리안 성결운동 양 진영의 중도적 성격이 있었고 평가받아 왔다. 이 점은 케직사경회가 웨슬리안을 열광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사경회식 성결운동을 전개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직운동 초기 신학은 이런 형식으로 논급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신학을 일관하여 정의하는 일은 사실상 어렵다. 그것은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인사들이 이 운동에 가담하였고, 이들이 동일한 신학적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케직의 신학은 18세기 이후의 복음주의적

35) J. D. Douglas and Earle E. Cairns ed.,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1978), 953.

36) 패커, 『성령을 아는 지식』 (홍성사, 2002), 205.

전통을 계승하되 약간의 견해차를 수용하면서도 성화론을 중시하는 복음주의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³⁷⁾

다른 한 가지는 케직운동은 18세기 복음주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19세기 중반 이후 영미복음주의 그룹의 다양한 인사들의 이념연쇄(idea-chains) 가운데 기원하고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윌리엄 보드만(William E. Boardman, 1810-1886), 로버트 스미스(Robert Pearsall Smith, 1827-1899),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1828-1917), 허드슨 테일러(Hudson J. Taylor, 1832-1905), 고든(Adoniram J. Gordon, 1836-1895), 무디(D. L. Moody, 1837-1899), 아더 피어슨(Arthur T. Pierson, 1837-1911), 토레이(Reuben Archer Torrey, 1856-1928) 등이다. 말하자면 19세기 복음주의운동의 중요한 인물들이 케직운동이라는 공동의 토대에서 상호협력과 부조를 통해 중생과 구원, 회개와 각성, 성결과 성화를 추구하며 교회의 갱신과 쇄신,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과 그 가치를 고양하며 전도와 선교의 책임을 다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약간의 신학적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복음주의자 간의 상호협력과 연대는 한 시대의 기독교적 가치를 지켜가며 선교적 책임을 다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고 평가된다.

37) 굳이 케직의 신학을 말한다면 중심 주제는 성화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논구가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재론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 김광열. “19세기 미국의 성결운동과 케직교훈의 성화론에 대한 개혁신학적 평가,” 『신학지남』 67/2(2000. 6), 174-191.
- 김명혁. 『케직, 암스텔담 멧세지』. 서울: 성광문화사, 2002.
- 노윤식. “위대한 선교동원가: A. B. 심슨의 생애와 사역,” 『한국선교 KMQ』 54(2015, 여름), 152-161.
- 박명수. 『근대사회와 복음주의』. 서울: 한들출판사, 2008.
- 박용규. 『세계부흥운동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 베빙톤, 데이비드. 『영국의 복음주의』. 서울: 한들, 1998.
- 스토트, 존, 『그리스도처럼: 케직 사경회 설교 1965-2007』. 서울: 포이에마, 2013.
- 영국케직사경회. 『왕대신 우리 주』. 서울: 두란노서원, 1986.
- 조규형. “어더 피어슨과 케직 사경회,” 『피어선 신학논단』 3/1(2014.2), 77-99.
- 패커, J. 『성령을 아는 지식』. 서울: 홍성사, 2002.
- 피어슨, A. 『케직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 _____. 『영국케직 집회 이야기』. 평택: 평택대학교 출판부, 2014.
- 케인, H. 『세계선교의 오늘과 내일』. 서울: CLC, 2002.
- 천영숙. “케직 교의에 나타난 성화론과 오순절 신학의 관계,” 『한영논총』 10(2006).
- 최재건 편. 『근현대부흥운동사』. 서울: CLC, 2007.
- Cole, K. A History of the CMS of Australia. Melbourne: The Ruskin Press, 1971.
- Durie, M. “H. B. Macartney and J. H. Davies: Fulfilling the Great Commission from Australia” (unpublished paper).
- Finny, C. Principle of Sanctification. Minneapolis: Bethany Pub., 1986.
- Marsden, G. The Evangelical Mind and the New School Presbyterian Experi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0.

Peter, J. Christian Perfection and American Methodism. NY: Abingdon Press, 1956.

Taylor, H. Hudson Taylor: In Early Years The Growth of a Soul. London: CIM, 1949.

Warfield, B. Perfectionism.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32.

Whaling, F. The Classics of Western Spirituality. London, 1981.

기타

김영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oonh20&logNo=220374578736>